

법 어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주 무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제’를 봉행한지도 벌써 스물한 번째라 하니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선열의 고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일은 후손의 도리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나라가 번성할수록 이 땅에 오늘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항상 간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간의 흐름에서 이렇게 뜻 깊은 법석을 오랫동안 이어온 홍법사 모든 대중에게 찬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족의 비극을 잊지 말자는 뜻인 동시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여느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이러한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평온을 마음에서 쉽게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교가 결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자비정신과 포용에 있을 것입니다. 인류사에서는 ‘성전(聖戰)’이나 ‘의로운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수없는 전쟁이 발생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내적으로는 자비와 포용으로 통치하고, 외적으로는 결코 다른 나라를 해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국왕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토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돌보며, 자국을 수호하고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평화를 가장 우선시 하라는 가르침이면서, 우리의 이웃과 민족, 나아가 모든 나라들과 화친하고 상호 우호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남북의 평화협력과 우호증진에 노력하라는 선견으로 다가옵니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남북의 모든 교류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 참혹한 것은 민족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전쟁입니다.

범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교도가 첫째로 지켜야 할 계율이 '살생을 하지 말라'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 대신 평화를, 다툼이 아니라 화합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동시에 다시는 그와 같은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법연을 여는 이유입니다.

오늘 동참하신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오늘 이 자리가 마치 큰 잔치이고 축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상주하는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성대한 헌공법회인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불법 홍포를 위해 수고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불자들의 잔칫날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홍법대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축제의 자

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보듬고, 오늘의 수고를 치하하며, 미래의 희망을 함께 가꾸는 훌륭한 법석인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면 현재에 충실할 수 없고, 과거를 망각하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법연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 홍법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과 장학생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찍이 동산, 구하, 경봉 큰스님 문하에서 발심하여 평생 수행하며 불심홍법원을 설립하고 오늘의 이 큰 가람을 이루어낸 하도명화보살님의 원력에 다시한번 찬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 홍법사가 이름 그대로 법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큰 서원으로 정진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5(2011)년 6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慈乘